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천변 2길 6번지

전북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국회 예결위 상륙작전 개시

신원식 정무부지사
예결위원들 찾아
전북 현안 반영 건의

전북도가 지난주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도 지휘부의 국회 상임위 대상 전방위 활동을 펼친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예결위를 타깃으로 집중 공략에 나선다. 도는 예결위원 대상으로도 한발 앞선 설득 활동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1일 신원식 정무부지사가 선봉장으로 나선 가운데 전북 연구원이면서 예결위원인 전혜숙 김한정 의원과 예결소위 위원인 장철민, 정태호 의원을 잇달아 만나며,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먼저, 정읍이 시책인 전혜숙 예결위원을 방문해 소관 상임위(과방위) 사업인 '홀로그래픽콘텐츠서비스지원센터 구축'의 증액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탄소산업 육성과 관련해 '탄소 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신규 반영과 함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정읍이 처가인 김한정 예결위원에게는 소관 상임위(정무위) 사업으로, 전

북 현안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보태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농생명산업 핵심사업으로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 플랫폼 구축'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사업이 예결위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신원식 부지사는 장철민 정태호 예결소위 위원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산자위 사업의 예산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먼저, 환노위 위원이자 예결소위 위원인 장철민 의원에게 전북도 핵심사업인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추진사업'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 오는 3일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며, 현업추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아울러, '환경오염 피해지역 친환경 복원사업'은 사업 필요성이 인정돼 부처 예산에는 반영됐으나 기재부 단계에서 미반영된 점을 설명하며, 익산 장점마을에 대한 피해복구 및 치유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새만금 환경생태유지 2단계 조성'은 여타 통과와 기본 및 실시설

계용역비 반영을,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은 기본구상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산자위 위원이자 예결소위 위원인 정태호 의원에게는 새롭게 그려가고 있는 전북 산업지도도를 설명하며, 이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동력사업의 예산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의 증액 반영과 함께, 산업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세부사업인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의 신규 반영을 건의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전주 탄소소재국가산업단에 구축하는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의 신규 반영과 함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예산 증액에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오는 4일 광주에서 열린 예정인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종배 예결위원장, 이만희 예결위 간사 등 야당 핵심 인사를 만나 주요 사업 예산반영 협조를 당부하고, 이어서 당일 오후에는 국회로 상경,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윤호중 원내대표 등 여당 핵심 라인을 방문해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날아라 JB 슈퍼보드' (이하 날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일 밝혔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젊은 생각 · 아이디어로 업무혁신 이끈다

전북도, 주니어보드 출범... MZ세대 직원 21명으로 구성
송하진 도지사 "도출된 의견, 도정 반영토록 적극 지원"

전북도가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업무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과 혁신'의 전도사로 주니어보드를 출범했다.

도는 송하진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날아라 JB 슈퍼보드' (이하 날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일 밝혔다.

날슈는 젊은 생각과 열정으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소통과 혁신'의 전도사로, 'MZ세대 언더보드' 행사를 진행해 MZ세대 직원들을 통해 본 공감대,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대도약청년과 홍정호 주무관은 "젊은 직원들의 말에 이토록 관심이 있게 귀 기울여주시지 못했는데, 큰 관심이 결맞게 조직문화 개선에 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날슈는 앞으로 월 1회 정기모임 및 주요행사 참여 등을 통해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직문화 혁신과 세대 간 소통 활성화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날아라 JB 슈퍼보드가 젊은 생각과 아이디어로 조직문화 개선, 주요정책 등에 참여·논의해 실질적으로 '소통과 변화'의 미중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리라 생각한다"며 "도출된 의견과 아이디어는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시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발맞춰 시민들이 일상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방역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방역의료와 경제민생 분야에 모든 행정력을 쏟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의료·경제민생 등 2개 분야, 8개 정책으로 구성된 '전주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방역의료 분야의 경우 시는 ▲재택치료 추진 ▲선별진료소 인력 증원 ▲백신접종률 제고 ▲마음치유 강화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임원이 필요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대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택치료관리자담임(7명)을 신설하고 재택치료자 급증에 대비해 20개반, 200명으로 구성된 지원반도 갖추기로 했다. 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남원의료원과의 이송거리를 감안해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이송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비상 상황에도 대비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코로나19 검사자 수 급증에 대비해 화산·덕진선별진료소에 기존보다 20여 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3개 검체라인을 더 늘려 1일 4,000명의 검사가 가능토록 조치한다. 또 기존 역학조사사와 자가격리는 위험도 기반의 역학 대응체제로 개편되며, 역학조사 기간도 유행수준 및 방역역량을 고려해 증상 발현 후 최대 5일까지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74.5%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로 정부에서 목표한 70%를

방역 · 경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

전주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계획 발표

재택치료 추진 · 선별진료소 인력 증원 등 방역의료체계 재정비
골목상권 드림축제 · 안심콜 서비스 지원 등 경제 활성화 주력

전주시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발맞춰 시민들이 일상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방역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방역의료와 경제민생 분야에 모든 행정력을 쏟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의료·경제민생 등 2개 분야, 8개 정책으로 구성된 '전주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방역의료 분야의 경우 시는 ▲재택치료 추진 ▲선별진료소 인력 증원 ▲백신접종률 제고 ▲마음치유 강화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임원이 필요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대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택치료관리자담임(7명)을 신설하고 재택치료자 급증에 대비해 20개반, 200명으로 구성된 지원반도 갖추기로 했다. 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남원의료원과의 이송거리를 감안해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이송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비상 상황에도 대비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코로나19 검사자 수 급증에 대비해 화산·덕진선별진료소에 기존보다 20여 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3개 검체라인을 더 늘려 1일 4,000명의 검사가 가능토록 조치한다. 또 기존 역학조사사와 자가격리는 위험도 기반의 역학 대응체제로 개편되며, 역학조사 기간도 유행수준 및 방역역량을 고려해 증상 발현 후 최대 5일까지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74.5%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로 정부에서 목표한 70%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사진 왼쪽) 과 조미정 기획예산과장.

달성했지만 돌과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아·청소년과 외국인 등 미접종자, 부스터샷 접종을 통해 일상회복 2차 개편 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소아·청소년의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해 교육당국 및 학교와 연계한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된다.

또한 시는 경제민생 분야 대책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지역기업 지원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다중이용시설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시는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이달 중 상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열고, 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는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중개수수료 2% 이하에 광고료도 없는 공공배달앱도 도입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구청에 현장접수 창구 3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전주시와 전북은행이 공동 출연한 40억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사업도 펼친다.

여기에 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도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목표액을 올해보다 20억원 높은 300억원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을 5억원으로 2억원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세무·기업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도 운영된다.

시는 안전한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체육 활성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한옥마을 문화체험시설과 전주역, 터미널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전주관광회복력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구체적으로 여행사 릴레이 팸투어, 태교여행 등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전주재즈페스티벌, 김장문화축제, 내나라여행 박람회 및 외국인관광 특화허브 조성사업 등이 마련됐다.

아울러 전국대회 등 기간 연이었던 44개 체육대회를 정상 개최하고, 전주 지역 5개 문화체육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문화의집, 복지관 등도 점진적으로 정상화된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끝으로 시는 개편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당 카페, 독서실 PC방 등 생업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해제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점중중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장은 "이번 일상회복 지원계획이 코로나19의 번 터널을 빠져나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탄탄한 방역의료 체계를 갖추고 지역경제가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 속에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